

호관대 신규학과 개설

석예진 기자 stpk02@khu.ac.kr

【서울】 2024학년도부터 호텔
관광대학(호텔대)에 글로벌
Hospitality·관광학과(글로벌
H&T학과)가 신설된다.

글로벌H&T학과는 ▲해외 우수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 강화 ▲영어 과목 온라인 오픈 강좌 개발 및 확대 ▲영어 트랙 학생 및 유학생을 위한 영어 기반 행정 체계 구축 ▲해외 취업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신설되는 영어전용학과다. 글로벌 시장 진출에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Hospitality·관광분야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입학 정원은 20명이다. 이는 호관대 기존 학과 내 정원 조정을 통해 확보된 인원으로, Hospitality경영학과 정원 중 11명, 조리&푸드디자인학과에서 2명,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에서 7명이 글로벌H&T학과 정원으로 옮겨졌다.

호관대 기존 학과 내 영어 트랙 (영어강의전용트랙)이 갖고 있던 구조적인 한계 역시 영어전용학과 (글로벌H&T학과)를 개설하는 이유다. 영어 트랙은 영어강의만으로 전공과정 이수가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산학협력맞춤형트랙 ▲융합트랙 ▲전문심화트랙 등과 같은 전공별 트랙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영어 트랙이 개설된 학과에서는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

택 과목이 영어강의로 개설되며, 트랙 신청자는 영어로 개설된 전공 강의를 통해 주어진 전공학점을 채우게 된다. 그러나 호환대 기존 학과에는 영어 전용 강좌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영어 트랙 학생이 전공학점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홈페이지나 각종 양식, 공지사항 대부분이 한국어로 제공된다는 점도 해당 트랙 학생들의 애로 사항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는 영어 트랙 신입생을 더 이상 선발하지 않고 모두 글로벌H&T학과 신입생으로 받는 등 글로벌H&T학과가 영어 트랙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H&T학과는 홈페이지 및 각종 양식에서의 영어 인프라 확보, 학과 전담 직원

및 조교 배치 등을 통해 운영될 계획이다. 기존 영어 트랙 학생을 비롯한 타 학과 학생의 글로벌H&T 학과 과목 수강 가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다.

호관대학장 정남호 호관대 학장은 “기존 호텔관광대학에서 잘 다루지 않던 글로벌 이슈, 리더십, AI/빅데이터, 창업 등의 과목을 조금 더 과감하게 다루고, 현장실습, 방학 중 전공연수, 해외대학 교환학생 의무화 등의 운영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존 학과와의 차별점을 밝혔다.

현재 호관대 학사과정은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에 속한 ▲관광학과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와 그 외 ▲Hospitality경영학과 ▲조

리&푸드디자인학과 ▲문화관광 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로 구성된 1개 학부 6개 학과 체제다. 내년부터는 위 학사과정에 글로벌 H&T학과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1개 학부 7개 학과 체제로 개편된다. 지난 2018년에 대학원과정 글로벌H&T학과가 개설됐음을 고려하면, 이로써 호관대에는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연계되는 영어 전용 강의 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정 학장은 “본 학과를 통해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전 세계 학생들을 받아 호관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며 “20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전 세계와 소통하고 공부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한 글로벌 H&T 리더가 될 것이라 믿는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사진=대학주보 DB)

코로나 격리의무 권고전환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6월 1일부터 교내 코로나 방역지침이 대폭 완화·적용되고 있다.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는 권고로 바뀌고,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 기준 지침은 폐지된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은 5월 31일 방역지침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확진자 격리 의무 폐지 ▲경희대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 기준 지침 폐지 ▲코로나 확진자 일상회복지원단 신고제 폐지 ▲코로나 확진자 거주장소 소독작업 중단 ▲코로나 확진자 개인방역 준수(권고)가 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팬데믹 사태 이후 처음으로 5일 권고로 완화된다. 경희대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 기준 지침은 단계별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내 일상회복 과정을 마련한 지침이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지침이 완화됐는데, 이번달부터 이러한 지침이 폐지된다. 다만 확진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철저 등의 개인 방역 준수가 권고된다.

한편 한균태 총장은 6월 1일 전
구성원에 보낸 이메일 서신을 통해
“구성원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큰 차질 없이 잘 대처할 수 있었다”
면서 “교수, 학생, 직원, 의료진 등
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치하
하기도 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in the KHU

교내 카페에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시면
선착순으로 캠퍼스별 각 100명에게
친환경 리유저블 백 또는 친환경 복물더링을 드립니다!



참 여 방 법

STEP 1. 경희대 캠퍼스 내 카페에서 텀블러에 음료 받기 (2회)

STEP 2. 1) 모바일 영수증 또는 카드승인내역 (일시 포함)과
2) 음료가 담긴 텀블러를 카페명(로고)과 함께 사진 찍어 인증하기

STEP 3. 글로벌봉사팀 구글폼에 업로드하기

STEP 4. 글로벌봉사팀에 방문해 상품 수령하기

친환경 리유저블 백 또는 친환경 복물더링 중 택 1

*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서울캠퍼스 신청서

국제캠퍼스 신청서

참 여 기 간

2023.05.22.(월) ~ 06.30.(금) 6주간

참 여 대 상

경희대학교 소속 대학(원)생 및 교직원 누구나

당첨자 발표

- 일정: 2023.07.05(수) 예정
- 캠퍼스별 100명
- Instagram, 홈페이지, 개별문자 등

상 품 수 령

- 일정: 2023.07.05(수)~07.14(금)
- 장소:
(서울C) 생활과학대학 612호 글로벌봉사팀
(국제C) 중앙도서관 1층 103호 글로벌봉사팀
- 방문수령





글로벌봉사팀
Global Volunteer Team

문의사항: 02-961-0673 khgsc@khu.ac.kr